이대은, 오타니 못지않은 인기…실력 증명만 남았다

대표팀 화제의 스타 이대은을 향한 기대

꽃미남 외모에 쿠바전 호투…단숨에 스타 등극
김인식 감독, 조별예선 이대은 카드 활용 고민

일본 지바롯데에서 뛰고 있는 이대은(26)은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에 출전한 한국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스타 중 한 명이다. 불과 2주 사이에 그렇게 됐다.

일본에선 '한류 이케멘(꽃미남)'이라고 불리며 일찌감치 이름을 알렸지만, 한국에선 대표팀 소집 전까지 아는 사람만 아는 선수였다. 그러나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붐이 일기 시작했고, 4일 쿠바와의 '2015 서울 슈퍼시리즈' 1차전이 지상파TV를 통해 생중계된 뒤 한국에서도 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당일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 역시 이대은의 차지였다.

대표팀이 일본 삿포로로 출국하던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성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진 촬영 요청을 받은 선수도 바로 이대은이었다. 수많은 팬들이 이대은 곁에 모여 "정말 잘 생겼다!", "눈이 정말 크다!", "키도 훤칠하다!"와 같은 감탄사를 토해냈다. 취재진과 팬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정도였다. 이 인기는 대표팀이 대만에 입성하던 9일에도 쭉 이어졌다. 입국 현장에 모인 수많은 취재진과 야구팬들이 이대은의 이름을 외치며 관심을 보였다. 일본대표팀 최고의 스타 오타니 쇼헤이(니혼햄) 못지않은 인기. 그야말로 '스타 탄생'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팀 안에서도 선배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포수 강민호(롯데)는 "공을 받아보니 불펜에서보다 실전에서 특히 강해지더라. 한국리그에 와서 뛰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애정을 표현했다. 투수 김광현(SK)도 훈련이 끝난 뒤 따로 밥을 사주기도 하고, 공항에서도 내내 붙어 다니며 후배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고 이대은이 외모만으로 주목받는 것은 아니다. 김인식 대표팀 감독이 일본과의 개막전 선발을 놓고 김광현과 이대은을 저울질했을 정도로 좋은 기량을 보였다. 쿠바와의 평가전에서 4이닝을 무안타 무4사구 무실점으로 막은 것이 그 증거다.

이번 대표팀에는 시속 150km대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고 153km를 찍은 이대은의 존재감은 더 빛난다. 이대은은 당초 일본전에도 김광현 바로 뒤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승부의 추가 일찍 일본 쪽으로 기울면서 등판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그 대신 김 감독은 1패를 안고 시작하는 대만 조별예선(B조) 4경기에서 이대은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거듭했다.

이대은 스스로도 각오가 남다르다. 미국과 일본 프로야구를 거치면서 늘 외로움과 싸웠던 그는 모처럼 한국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더 기운을 얻고 있다. 팀에서 중요한 존재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서 더 그렇다. 그는 "처음에는 대표팀 생활이 실감이 안 났고 얼떨떨했지만, 이제 잘 적응되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다"며 "한국에서 팬들의 사랑도 많이 느꼈다.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활짝 웃었다.

배영은 기자 yeb@donga.com

이대은이 '2015 프리미어 12'에 출전한 대표팀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가 과연 대만 조별예선(B조) 4경기에서 언제 베일을 벗을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이대은이 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쿠바와의 1차 평가전에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전직 빅리거 수두룩…만만찮은 도미니카

올리보·베테미트·펠리스 등 장타자 보유
세계랭킹도 한국보다 높아…방심은 금물

8강 진출이냐, 예선 탈락이냐.

한국이 11일 대만 타이베이 티엔무구장에서 도미니카공화국과 일전을 벌인다. 도미니카공화국전은 남은 조별예선(B조) 4경기에서 3승 이상을 목표로 한 대표팀에 가장 중요한 경기다.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어려운 상대지만, 패한다면 남은 3경기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된다. 반드시 도미니카공화국을 꺾어야 조별예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빅리그 최고 유격수 출신인 미겔 테하다(41)가 지휘봉을 잡은 도미니카공화국은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세계랭킹 6위로 한국(8위)보다 높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40인 로스터 내 선수의 출전을 불허해 현역 스타플레이어는 없지만, '전직 빅리거'들은 많다. 메이저리그 162경기에서 48승(65패)을 올린 다니엘 카브레라(34)는 일본프로야구 경험도 지니고 있어 경계해야 할 선발투수다. 지난해까지 빅리그에서 뛰며 1124경기에 나선 베테랑 포수 미겔 올리보(37), 주전과 백업을 오가며 통산 804경기를 뛴 내야수 윌슨 베테미트(34), 1302경기로 가장 많은 빅리그 경험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20홈런에 통산 140홈런을 친 페드로 펠리스(40)도 있다. 모두 장타력을 보유한 타자들이다. 이외에도 투수 루이스 페레스(30), 포수 로빈손 디아스(32), 외야수 윌킨 라미레스(30) 등이 빅리그 출신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당초 마이너리그 유망주들을 대거 선발했으나, 소속팀의 반대로 28명의 엔트리 중 절반인 14명을 교체했다. 한국이 전력분석에 애를 먹은 이유다. 특히 더블A 유망주들이 대부분이었던 투수진은 11명이나 교체됐다.

우리에게 호재도 있다. 빅리그 출신들은 전성기가 한참 지났다. 올리보는 올해 마이너리그가 아닌 멕시코리그에서 뛰었고, 불혹의 펠리스나 베테미트는 아예 출전기록이 없다. 다만 로니 로드리게스(23), 테오스카 에르난데스(23), 아젠디 페레스(22) 등 젊은 마이너리거의 가능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

타이베이(대만)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일본전 이어 도미니카전도 그라운드 변수

또 경기장 한 번 못 밟아보고 실전 돌입

야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8일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 일본과의 개막전에서 완패한 이유 중 하나로 삿포로돔 부적응을 꼽았다. 삿포로돔은 야수들이 수비하기 매우 까다로운 구장이었다. 홈플레이트 뒤쪽 파울구역이 넓어 폭투가 나오면 공을 처리하기 어려웠고, 인조잔디인 까닭에 슬라이딩도 어려웠다. 결국 한국은 폭투가 시발점이 돼 첫 실점을 했고, 외야 수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회 개최국인 일본이 한일전을 일부러 삿포로돔에 잡고, 미리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했다는 논란까지 일었다.

대표팀은 조별예선 남은 4경기와 8강전이 치러지는 대만으로 향했지만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다. 9일 대만에 도착한 대표팀은 10일 공식훈련을 했다. 훈련장소는 티엔무구장이었다. 11일 도미니카공화국과의 B조 2차전이 열리는 타오위안구장에선 10일 오후 1시 멕시코-베네수엘라전, 오후 7시 도미니카공화국-미국전이 잡혀있어 어쩔 수 없었다.

대표팀으로선 아쉬움이 남는다. 삿포로돔과 마찬가지로 타오위안구장을 밟아보지 못한 채 실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반면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전을 통해 타오위안구장을 한 차례 경험한 뒤 한국과 대결한다.

대표팀은 11일 도미니카공화국전을 앞두고 주어지는 훈련시간에 잔디와 그라운드 상태, 펜스 등을 재빨리 파악해야 한다. 그나마 위안은 타오위안구장은 돔구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14~15일 멕시코전과 미국전은 티엔무구장에서 치러진다. 11일 도미니카공화국전에서만 그라운드 변수를 주의하면 된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한국대표팀 2015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 프리미어 12 경기 일정 및 결과

일시(한국시간)	대진	장소	결과
11.8(일) 19시	개막전(vs 일본)	일본 삿포로돔	0 - 5 (패)
11.11(수) 19시	예선 라운드(vs 도미니카공화국)	대만 타오위안구장	
11.12(목) 13시	예선 라운드(vs 베네수엘라)	대만 타오위안구장	
11.14(토) 19시	예선 라운드(vs 멕시코)	대만 티엔무구장	
11.15(일) 19시	예선 라운드(vs 미국)	대만 티엔무구장	
11.16(월) 미정	8강전	대만(미정)	
11.19(목)~20(금) 미정	4강전	일본 도쿄돔	
11.21(토) 19시	결승전	일본 도쿄돔	